

제 6 편
종교 宗教



제6장 원불교 圓佛敎

1. 장수 원불교



장수원불교 교당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구
- 연 혁 : 서기 1952년
- 연 원 : 익산군 교당
(사실상 연원자는 대기화씨)
- 원 기 : 74년
- 자 산 : 부지 200여평
- 교 당 : 60평(생활관 포함)
- 교 도 : 900여명

원불교의 교리는 불교의 교리와는 많이 다르긴 하나 자기수양에서 자기가 스스로 구제되고, 스스로 구제되지 못하는 원리는 동일하다. 즉 복을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모두 스스로 자기 자신에 있지 결코 자기의 문제가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소멸된 것도 아니라는 데 종교의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원불교를 신봉하던 분이 별세하였을 때 조상소에 망인의 사진이나 위패를 봉안하고 양편에 문장을 부착하였는데, 원력을 굳게 세운 후 착오 없이 길을 떠나고자한 생각이 청정할 때 연대의 문이 열리며 정중한 문장을 볼 수가 있다.

문장을 보는 순간 무엇인가 가슴에 와 닿는 게 있다. 몸을 받아서 한세상 살다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는 것뿐인데 결코 죽음과 삶의 실례가 될 수 없다는 이치를 강조한다.

또한 생각 청정할 때 연대의 문이 열리며 문장은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 바르고 깨끗이 살았을 때 비로소 닫혔던 문이 열려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하면서 준엄한 교훈이다.

음식이 만연하여 소란한 것도 아니며 곡식성이 낭자하여 애처로움도 없이 조용 하고 엄숙해 보이는데 천도의 독경소리만이 가득할 뿐이니 참으로 착오 없이 길을 가게 하는 분위기이다.

영천영지영보장생(永天永地永保長生)의 길을 찾아 가라는 뜻있는 자리이다. 보보일절대성경(步步一切大聖經)이라 걸음걸음 모두가 큰 성인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그 자리는 엄숙하고 준엄하기만 하다.

그대 세상에 태어나 선과 악을 스스로 지었으니 그것은 그대의 지을 수 없는 그것이라 미래에 다시 받게 되는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방해도 있으랴. 영의 세계와 인간세계에 엄연한 법칙 일진대 무엇으로써 증하고 감하랴. 오직 그대의 청정한 마음과 정결한 몸가짐만이 그를 보장할 것이다. 끝없이 넓은 그대의 마음속에 청정하고 정결함이 있느니라. 맑고 맑은 그 마음에 검은 점이 생기어 자라서 맑음을 덮어주면 그대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대 행실은 악해지며, 악행을 지고 가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어느것 하나도 인이 있어 시작되고 연으로 끝나니 인과 연을 그대는 스스로 찾고 스스로 행하라 >하는 교리는 만인간의 수양서이다. 세세년년 억만년에 오고가는 길마다 그대의 자욱은 남고 그대를 따라가니 무엇으로 아니라 할 것인가.

조사자가 느끼는 원불교는 구불교의 교리에 현실적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었으며 또한 한국인의 마음이라 한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교리이다. 귀하고, 천하여도 부하고 빈 하여도 제가지고 오고지고 가는 제업이니 만족하고 탄식할 아무 이유도 없다는 의의가 담겨 있다.

37년에 장수에서 창립 당시 장수읍 동촌리 교당은 수양원이 되었고, 교도를 교화하는 교당은 장수읍에 있다. 창설당시의 사실상 연원자인 대기화씨는 인을 지고 와서 연에 따라 원불교를 전파하고 입적하였으며 큰 업을 남기고 가셨다고 그 당시의 교무 선생은 박진오 선생이며 교도 회장은 유정희 법명 장수리 현재 원불교 교당이 전시 교당 대지를 회사 하였고, 교당 신축 사업에도 불소한 재물을 회사하여 대업을 심었다. 물질에 현혹되고 현실에 아

부가 만연한 현 사회에서 개개인의 교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있다.

2. 산서 원불교회



- 위 치 :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06 번지
- 연 혁 : 1952년 2월 15 일
- 대 지 : 706 평
- 건 물 : 50 평(부속건물 30 평)
- 자 산 : 전 2,069 평
- 교 도 : 남 682명, 여 1,377 명

원불교 산서교회는 1952년에 창설되었다. 교도 최보순은 전북 출신을 원한 바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출가해 모상준을 친정한 다음 자신은 금평교회로 내왕하며 항상 산서에 교당 창설을 염원하였다. 금평교회 정재윤 교무의 교도에 힘입어 모성실, 박자원, 이대중화, 우장오, 김문관, 최음심 등이 협력하여 산서교당창설을 위해 성미(誠米) 15가마를 모아 산서면 봉서리에 와가 2동을 매입하고 1953년에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에다 원불교 산서지소의 간판을 달았다. 그리고 법회는 매월 9일~3일로 정하였다. 초대교무에 유장순이 부임하였고, 초대회장에 김현식이 지명 되었다.

서기 1957년 3월 24일 교인회의를 가져 교당을 산서면 동화리로 이전할 뜻을 정해 백미 57가마를 준비하여 이전계획을 확정, 봉서리 교당미 20가마를 합하여 현재의 교당터를 매수하였다.

1963년 1월 법당 신축공사가 기공되었다 산서에 원불교가 발전하는데 하나 큰 힘은 모성철과 그 슬하 3형제의 죽음이 흡사 에밀레종의 전설과 비슷한 애련함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성철 부부는 아들 3형제가 죽은 인연을 원불사와의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영세불멸의 세계로 인도하는 뜻에서 백미 50가마를 희사하였다. 교회에서 준비한 백미와 합하여 300가마로 계획을 세웠다.

법당 낙성 봉불식은 1964년 12월 29일에 하였다. 1970년 11월에 종각과 정문을 준공하고, 1977년에 원불교 산서청년회를 결성하였고, 1979년 81년 84년 등에 생활도구와 환경을 정리하였다.

1989년 즉 원기 74년에 생활관과 법당 부속건물 등을 수리하는 등 혁신적 발전을 하고 있다 관·혼·상·제 등이 현실적이며 간소화하는 예식은 사회가 본받아야 하며, 특히 초상 시에 사진이나 위패 옆에 게시되어있는 흙포의 문장은 원불교적 입장에서 또 신봉에서 하는 의례겠지만 뜻있는 눈으로 보면 믿어야 할 교훈이다.

예문(例文)하여 보면, <원력을 굳게 세운 후 애착 없이 길을 떠나며 한 생각 청정할 때 연대의 문이 열리니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 마음에 흑점이 생기고, 마음의 흑점은 청정한 눈을 흐리게 하여 생각 밖에 것을 생각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한도 남고 애착도 생기는 것이다. 한과 애착 때문에 살던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아 할 때 후생을 버리니 모든 한도 모든 애착도 버리고 본래에 먹었던 마음의 힘을 얻어다 버리고, 좋은 데로 가라>는 교훈이며, 한 사람 한 사람 제 몸이면서 제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하나 원불교의 교리는 반듯이 제가 지고 제가 받는다는 것이다. 한마음 청정할 때 연대의 문이 열리는 교리도 역시 따지고 보면 동일하다. 한평생 사는 동안 마음이 깨끗하여 깨끗이 살면 부처님이 계신 곳을 가는 문이 열리며 극락의문이 스스로 열린다는 말인데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문을 열어도 보이지는 않으며 갈 길을 모른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좋아하는 대로 찾아간다는 것이 되겠다. 주색잡기를 좋아하면 주색잡기 하는 곳으로, 장사를 좋아하면 장사하는 데로 찾아가고, 공부를 좋아하였으면 공부하는 데로 간다는 교리이다. 사람의 몸은 정신이 움직이며 육체는 사실상 무가치 하다는 것이다. 생과 사의 세계는 다를 바 없다는 진정한 의미이다.

원불교의 교리는 다른 어떠한 힘으로도 구제할 수 없으며 잘못도 제가 받

고 잘한 것도 제가 받는다. 부처도 제 마음 속에 있고 악마도 제 마음속에 있어 결코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교리인 것이다

3. 장계 원불교



- 교 명 : 원불교 장계교당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27-2
- 설립연도 : 1959년 5월 25일
- 연 원 : 장수 수양원
- 대 지 : 140평
- 건 물 : 법당 46평(63년에 완공, 11월 21일에 봉불 낙성식)
- 교 도 : 남 250명, 여 300명 계 550명
- 교 무 : 1대 - 이전원 2대 - 신덕인
3대 - 김혜국 4대 - 임정욱
5대 - 김진학

장계 원불교는 1958년 장수교당 유주형 회장의 인연으로 장수 원불교 김인철교무의 출장 법회를 시작 한성기 장계 교당 교도회장의 주선으로 법회를 열게 되었으며 한회장의 교회 부지 140평을 회사함으로써 장계 원불교당이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원불교의 목표는 도학(道學)과 과학(科學)을 병진하는 광대 무량한 낙원 세계건설에 두고 있으며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에 두고 이는 우주의 근본적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앙의 표어로는 처처 불상 사사불공으로 하고 수행표어로 무시선(無時禪), 무처선(無處禪)으로 삼

고 사람으로서 미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을 밝힌 인생의 요도(要道)를 실천 수행하게 한다.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는 "인과 보은의 신앙"으로 4 은신인 천지(天地)은 부모(父母)은, 동포은 법율은 처처 사사 보은적 불공을 현 생활 현장에서 실천 하게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래는 "진공 묘유의 수행"으로 3학인 정신수양, 사리 연구작업 취사를 통하여 동정간 불리선을 실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참선의자세로 생활화가 되게 교도의 교화에 힘쓰고 있다. 포교 활동은 불교의 시대화 대중화로 현실의 생활에 맞게 포교에 힘쓰며 일반정기 법회 학생회 어린이 법회 등을 통하여 원불교 포교에 주력한다.